

I. 서론

1. 연구목적

문자는 인간만이 지니는 소통의 도구이며 사고와 정보를 저장하는 역사의 기록이다. 문자의 생성은 문자그림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여 문자와 그림으로 분리되거나 일치되어 그 나름의 독자성과 구조를 지니며 변모하였다.

동양의 서예는 문자와 그림이 일치되어 표현된 문자예술로 그 변형체로 문인화, 동양화, 부적, 문자도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문자도는 과거 우리 선조들의 윤리관과 역사성을 담은 실용화이며 대표적으로는 효제문자도가 있다. 효제문자도는 그 시대의 유교적 윤리관을 담은 문자도로 삶의 중요한 덕목을 담아 실생활에 장식되어 우리 민족의 삶 속에 상징하는 의식들과 한국전통의 조형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이다. 정보화 시대로 오면서 세계는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과 개인이 소통하고, 사회와 개인이 소통하며, 사회와 사회가 소통하고 있다. 인터넷은 과거에는 없던 과학이 가져다준 새로운 형식의 소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편리한 도구가 되었다. 이 시대의 디지털 세대들은 이러한 소통의 공간 안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소통의 개념으로 아이콘(icon)¹⁾, 이모티콘(emoji)²⁾, 덩벙폰트(dingbat font)³⁾ 등 그림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문자와는 다른 유희성을 지니며 기계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적인 감성과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 이는 상징성, 유희성, 장식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자도와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우리 민족의 생활 철학과 민족 정서가 내재된 문자도와 디지털 시대의 감성과 정서를 지닌 덩벙폰트를 작품의 소재로 삼아 문자그림의 본원적인 기능과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또한 과거와 현재를 대표하는 두 가지의 문자그림을 통하여 대립과 조화를 통해 문자가 지니고 있는 소통의 의미와 문자그림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 상징적 아름다움을 도자조형으로 표현하여 재인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컴퓨터에 제공하는 명령을 문자나 그림으로 나타낸 것. 마우스나 라이트 펜으로 그림을 선택하여 명령을 실행한다. 국립국어원. <표준대백과사전>

2) 컴퓨터나 휴대 전화의 문자와 기호, 숫자 등을 조합하여 만든 그림 문자.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 국립국어원. <표준대백과사전>

3) 덩벙 폰트는 알파벳이나 한글로 되어 있는 문자 폰트가 아닌 간단한 이미지 혹은 기호가 문자를 대신하는 폰트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문자그림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추상적으로 변모하여 그림과 문자가 분리되면서 실용적인 기호로 정립되었다. 그러나 동양의 문자는 문자와 그림을 동일하게 보는 관점에서 비롯되어 지금의 형태를 발전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동양의 예술 중 하나인 서예에서 그리기와 쓰기가 동시에 행해지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서예의 변형체라 볼 수 있는 문자도는 서예와 상징성을 지닌 그림이 함께 표현된 문자그림으로 과거의 윤리관과 정서를 담고 있는 실용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자도와 현대의 문자그림을 함께 표현하여 도자조형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문자도 중에서는 문자와 그림을 통해 상징성을 가장 강하게 띄고 있는 효제문자도를 표현의 소재로 삼았으며 현대의 문자그림에서는 문자도와 같이 상징성, 유희성, 대중성이 강한 덩벙폰트를 표현의 소재로 선택하였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문자그림의 이론적 배경은 국내외 학위논문과 관련 서적, 문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문자그림의 발생배경과 사회적 기능,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문자도의 형성배경을 조사함으로써 그에 반영된 윤리의식의 기원을 알아보고 문자도의 형성에 있어서의 효제문자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셋째, 효제문자도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조형적 특성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넷째, 효(孝)·제(悌)·충(忠)·신(信)·예(禮)·의(義)·염(廉)·치(恥) 등 여덟 글자를 통하여 유교적 윤리관의 사상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다섯째, 문자도의 윤리관을 상징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현대사회의 새로운 공간인 디지털 공간 안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를 조사하고 그 종류와 쓰임, 상징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섯째, 현대의 미술 작품을 통하여 문자도의 조형적 특성이나 의미를 차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현대적 소재가 문자도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같이 융화되어 조화를 이루었는지 연구하였다.

작품에 있어서는 위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효제문자도의 이미지와 그 상징성을 담은 현대 문자그림을 병치시켜 대비와 조화를 동시에 이루는 새로운 조형미를 시도하여 제작하고자 하였다. 또한 효제문자도의 상징물들을 현대문자인 덩벙폰트로 변형시켜 함께 표현함으로써 같은 소재가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며 표현방법에서도 변화함을 나타내어 문자그림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과 조형미를 나타내보고자 하였다.

색채장식에 있어서는 시대적으로 대비되는 두 종류의 문자그림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유약과 안료를 이용하여 표면의 질감을 달리 표현하고자 하였다. 문자도는 상징성을 지니는 전통적 색감을 사용하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식되고 마모된 질감으로 표현하여 과거의 문자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테라시질레타에 안료와 산화물을 혼합하여 발색실험을 하였다. 반대로 덩벙폰트는 현대적 느낌으로 표현하기 위해 강렬한 원색의 광택유를 사용함으로써 문자도와 대비적인 효과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소지는 성형의 용이성, 건조 및 소성수축으로 인한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샤모트와 물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석기질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성형방법으로는 가압성형, 판성형, 코일링 기법, 속파기 기법 등을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문자그림에 관한 고찰

인류의 시작과 함께 인간은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였다. 몸짓과 표정은 그 단순성에 세밀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인류는 음성으로 이루어진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음성으로 된 언어 역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생기면서 인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언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멀리 전달할 수 있는 문자를 고안해 내었다.

문자의 등장은 인류역사 발전에 있어 가장 초석이 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자에 의한 기록이 있었기에 현대인들은 학습하며 발전할 수 있었으며 역사의 기록으로 그 시대의 사고와 생활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원시시대에 그려진 단순한 그림들은 동식물이나 의식주, 그리고 자연환경을 묘사하여 언어와 문자의 역할을 대신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인류가 처음 그린 그림은 기원전 15,000~10,000년경의 라스코 동굴 벽화나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이다. 자연주의적 수법으로 생생하게 그려진 동굴의 벽화를 보고 우리가 원시인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보의 저장’과 ‘사고의 전달’이라는 문자의 본원적 기능을 그림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도1] 라스코 동굴벽화



[도2] 알타미라 동굴벽화

4) 예술의 전당. 『문자의 세계』. 예술의 전당 출판부. 1996. p.9

그들이 벽에 그린 동물의 그림은 그 동물의 '정보'를 뜻하는 것으로 생김새나 급소를 알 수 있는 정보전달 체계였다. 또한 그 동물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많은 수확을 기원하며 제를 지내는 제단의 역할로 주술적, 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그림은 사회적 약속을 바탕으로 더욱 추상화, 기호화되어 사물의 외형을 단순화 시키거나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하여 나타내었다. 이는 사물을 그대로 상징한 것으로 상형문자라는 형태로 본격적인 발전을 하였다.

상형문자는 그림문자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된 진정한 의미의 문자기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형문자는 세계 곳곳에서 그 원류를 찾아 낼 수 있는데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설형문자, 이집트의 상형문자, 히타이트 문자, 중국의 한자 등이 모두 회화문자에서 발전된 상형문자이다.⁵⁾



[도3] 『설형문자판』, 점토, 앙키라 고고미술관, B.C. 19세기



[도4] 『아니타 문서』, 점토, B.C. 13~14세기



[도5] 『미이라를 쓰는 천』, 점토, 미국 워싱턴 D.C., B.C. 2~3세기

상형문자는 단순히 형태가 지니는 의미만을 가지고 의사전달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으로 형성된 사물의 여러 의미를 상징적으로 지니며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태양은 '날(日)·빛(光)·밝다(明)·희다(白)' 등에 두루 쓰인다. 그러므로 회화문자는 사물뿐만 아니라 개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새와 새

5) 조한범, 『문자를 주제로 한 도자조형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7

알을 같이 놓으면 ‘풍요’를 의미하고, 하늘에서 수직으로 선을 그려 놓으면 ‘밤’을 의미한다. 또 두 줄의 선을 엇갈려 놓으면 ‘적개심’을 의미하고, 평행의 두 줄은 ‘우정’을 의미한다.⁶⁾

오늘날 문자가 체계적으로 정립되면서 문자와 그림은 서로 분리되어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그림이 지니는 정보의 저장, 소통의 수단이 문자의 기원이 되었고 필요성에 따른 형태의 변화가 지금의 문자의 형태를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문자와 그림은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자는 의미전달 이전에 먼저 시각에 호소하는 형태를 지닌 시각적 대상으로 일정한 의미가 주어진 사회적 약속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특정 문자의 의미를 먼저 전제하기로 약속한다면 문자는 그 본연의 형태적 한계를 넘어 보다 자유스러운 모양으로 전개될 수 있다. 뜻글자의 상징성을 잘 표현한 문자도는 수많은 글자와 문양들 속에서 이러한 글자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2. 문자도의 형성

문자도의 기원을 찾는다면 민화가 성행했던 조선 시대의 건국이념이자 통치이념인 유교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유교의 연원은 요순(堯舜)시대와 하(夏)·은(殷)·주(周) 삼대문화가 그 사상적 기초를 이룬다. 요순시대를 이상적인 사회로 삼는 유교의 이상사회는 대도(大道)가 행해지는 ‘대동(大同)의 사회’로서 천하를 공공의 소유로 삼는 평등사회였다.⁷⁾

유교의 시조(始祖)인 공자는 인(仁)을 가장 중요시 여겼으며, 인은 곧 효(孝)이며 제(悌)라 하여 인의 근본을 가족적 결합의 윤리라는 최초의 사회 구성체 원리를 근거로 삼았다. 이는 더 나아가 궁극적인 하나의 사회공동체, 즉 국가 안에서 질서 있는 조화적 결합으로 상호관계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건설을 이념으로 하였다. 공자는 이념의 실행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禮)를 전통적·관습적인 사회규범으로 삼고, 그것은 곧 인의 사회성·객관성을 보충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 후 맹자가 나타나 유교의 사상을 뚜렷하고 내면적으로 심화하며 정치적으로

6) Georges Jean, 『문자의 역사』, 강동일 역, 사계절, 2008. p.17

7) 하수경, 「한국 민화의 윤리 문자도의 상징과 표현 위기」, 『비교민속학』 Vol.25 No.2008. p. 321

로도 정비하였다. 맹자는 인간과 사회의 계층 간 질서를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기준으로 예로서 덕치를 강조하였다. 덕치는 바람직한 질서를 분별할 수 있는 인의예지라는 덕목과, 관과 민의 갈등구조를 화해로 이끌 수 있는 성실성과 관용성이 충서(忠恕)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고 보았다.⁸⁾

유교는 송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이루는데, 우주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철학적인 유학으로 이론적으로 심화되고 학문적 체계를 이루게 되어 이를 성리학이라 부른다. 성리학은 조선시대에 활발히 탐구되어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였으나 그 전래된 연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그 시기가 확실하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삼국시대에 당나라에서 국학(國學)을 받아들인 것을 기원으로 삼는데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최초로 설립한 태학(太學)에 염원을 둔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성균관과 향교가 세워졌고 많은 서원이 생기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과 사회 공동체 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문자도의 성립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세종 13년(1431) 왕명에 의해 『삼강행실도』가 편찬 강행되어서 삼강의 내용이 그림으로 널리 제시되었고, 중종 9년(1514)에 『속삼강행실도』가 간행되었다. 문자도의 내용에는 『속삼강행실도』의 고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삼강행실도』의 간행 직후에 문자도의 형식이 성립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한다.⁹⁾

문자도는 글자의 뜻을 고사와 관련되는 소재나 인물들을 『삼강행실도』에서 발췌하여 유교의 윤리와 정신을 담았다. 이는 그림이라는 형식을 취하며 주로 병풍으로 꾸며 집 안에 장식함으로서 유교의 덕목을 생활화하는 교화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문자도는 처음에 그 수요층이 주로 사대부와 문인들로 이루어졌으나 19세기에 이르러 농업 생산력과 경제의 발달로 서민들이 부를 축적하면서 수요층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들은 부를 축적함에 따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갔으며, 회화의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순수 감상용 회화보다 장식적 그림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문자도와 같은 장식 그림들은 사대부가에서 부터 일반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보편화 되었는데 이는 무가 '춘향가'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대문에 그려 붙인 울지경덕 두 장수는 외눈만 남아있고, 내 손으로 써 붙인 입춘서 부벽서는 중우에 떨어져서 기운 없이 필렁필렁, 효제충신 예의염치, 충성 충자 바라보니 가운데 중은 어디가고 마음 심자만 남았구나.』¹⁰⁾

8) 김영평, 정인화, 『유교문화의 두 모습』, 아연출판부, 2004, p.57

9) 김호연, 『한국민화』, 경미문화사, p.179

10) 김진영, 김현주 역주, 『한국민화』, 박이정, 1996, p.270

『광통교 아래 가게 각색(各色)그림 걸렸구나/보기 좋은 병풍차(屏風次)에 백자도(百子圖) 요지연(瑤池宴)과 곡분양(郭汾陽) 행락도(行樂圖)며 강남(江南)의 금릉 경직도(耕織圖)며 한가한 소상 팔경(瀟湘八景) 산수도 기이하다. /다락벽에 계견사호(鷄犬獬虎), 장지문에 어약용문(魚躍龍門)/해학(諧謔)·반도(蟠桃) 십장생과 벽장문차 매죽(梅竹)..... 중략..... 문에 붙일 신장(神將)들과 모대(帽帶)한 문신(門神)들을/진채(眞彩)며여 그랬으니 화려하기 측량없다.』¹¹⁾

위의 이야기들은 19세기 후반 경 한양의 광통교에서 민화의 매매가 이루어졌고, 생활 속에 확산되어 서민들의 의식과 정서를 반영하는 그림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사대부가의 장식 그림이 지니고 있던 양식에서 서민들의 미적 취향이 반영되기 시작하여 서민 예술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민화의 종류 중 하나인 문자도 역시 민화의 유행과 시기가 비슷하였을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문자도는 대부분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그 중 궁중의 화원에 의해 제작된 것은 극소수 작품만이 외례용 병풍화들이고 그 외에는 작자 미상의 지방의 화가에 의해 그려진 작품들로 다양한 양식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2. 문자도의 조형적 특징

문자도는 민화의 한 종류로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 유사한 조형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형태적인 특징으로는 사물의 평면화, 의인화 표현, 상호 비례관계 무시, 동시성의 표현이 있으며 구조적 특징으로는 역원근법의 표현, 대칭적 표현, 다시점 표현이 있다.

우선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그림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입체감과 상호간의 공간감을 무시한 채 평면화되어 그려졌다. 또한 동물이나 사물을 사람처럼 해석하여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그림이 지니는 의미를 강조함에 따라 사물의 크기 표현을 달리하여 상호의 비례관계를 무시한다. 또한 동시성 표현을 통하여 하나의 사물을 정면과 측면에서 본 것을 한 사물을 통해 동시에 표현하였다.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가까운 사물은 작게 멀리 있는 것은 크게 표현하는 역원근법을 사용하며 화면 구도가 대칭을 이루는 대칭적 표현을 하기도 하며 자유분방한 시점을 통하여 사물을 표현함으로써 관념적인 공간을 동시에 나타내는 다시점 표현이 있다.

하지만 문자도는 이러한 민화의 특징을 지님과 동시에 독자적인 조형적 특징들을 지니고도 있다. 문자도 중에 조형적 특징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11) 박성의, 「한양가」, 『농가월령가』, 예그린출판사, 1978. p118~121

수 있는 것은 효제문자도 이다. 효제문자도는 문자의 윤리적인 내용과 소재가 상징하는 조형적 특징들이 화면구성 및 표현 기법에서 공통성을 지님과 동시에 시기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공통적인 조형적 특징으로는 한자의 조형을 기본으로 굵은 서체를 다양한 필획을 통하여 표현하였고 글씨의 안쪽이나 바깥쪽에 문자의 뜻을 상징하는 소재들을 표현하였다. 도상의 배치는 글자의 획에 의한 일정한 위치를 따르거나 변형되어 있으며 뚜렷한 윤곽선을 지니고 있다.

양식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초기에 개인의 수양을 위해 문자의 의미가 강조되는 것에 치중하고 중기에는 생활과 밀접하여 주거환경을 위한 기능성이 강조되었다. 후기에는 열강침략과 같은 사회혼란의 영향과 서민사회의 예술로 소비되면서 구도이탈과 색감저하와 같은 쇠퇴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효제문자도는 시대환경과 그 쓰임의 변화에 따라 양식 또한 변한 것을 추측할 수 있고 시기에 따른 조형양식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초기양식

문자도의 초기 양식은 정자체로 문자의 의미를 강조하여 교화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어 글자의 원래 형태가 변하지 않은 명확한 서체로 문자를 표현되었다. 글자 속에 고사의 내용이 회화적으로 표현되거나 3단의 형식으로 기하학적인 문자와 문양으로 표현을 한 것이 있다.

[도6]를 살펴보면 글씨는 정중한 느낌을 자아내는 행서체(行書體)에 근간을 두며 전체적으로는 획 순서와 상관없이 평면적으로 구성하였으나 일부 획을 겹치게 표현하여 입체감을 주기도 하였다. 서체의 원래 형태가 변하지 않은 채 획 속에 고사내용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누각이나 산수풍경들은 공간감을 나타내며 부분적으로는 역원근법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산수, 인물, 화조라는 세 가지 동상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며 여백의 강한 느낌을 줄이고 채색은 진채를 사용하여 화려함을 주었다.



[도6] 『문자도』 지본채색, 호암미술관

(2) 중기양식

중기에 오면서 이 시기의 효제문자도는 가장 보편적인 형식으로, 형상과 자획 모양이 조화를 이루고 소재가 도식화되어 보다 관념적이고 해학적으로 표현되었다.

이 시기에는 상징이 독자적인 의미로 변화되며, 그 수요가 사대부의 독점물에서 서민으로 확대되면서 글씨 자체보다는 형상이 강조되어 장식성에 치중하게 된다. 기본 서체는 팔분체(八分體) 형태의 비백서(飛白書)를 기본으로 하여 행서, 초서, 진서, 해서 등의 글씨체가 기본이며, 자체(自體)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표현된 형태도 있었다.¹²⁾

또한 화면에 등장하는 사물들은 입체감이나 상호간 공간감이 무시되면서 평면화 되었다.



[도7] 『운자도』 지본채색,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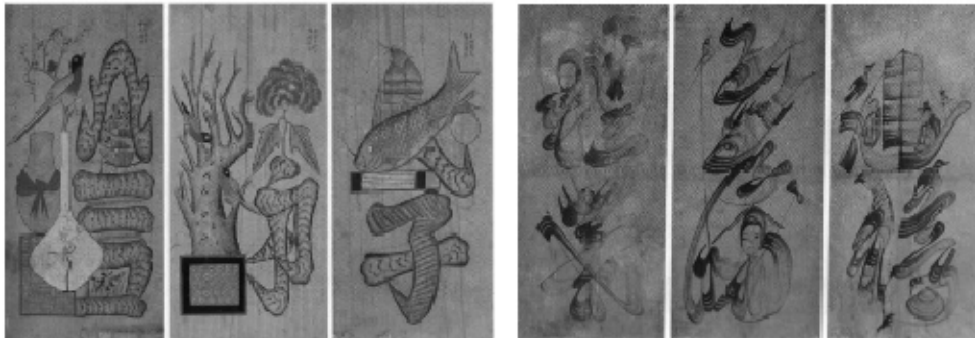
[도8] 『유자도』 지본채색, 국립민속박물관

12) 권영주, 『조선 효제문자도의 도상적 특성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6

색채는 강한 먹색으로 서체를 구성하면서 도상은 화려한 원색을 사용하여 보색, 명도, 채도 대비를 통해 보다 조화로운 화면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다른 형식으로는 [도8]과 같이 2단 또는 3단의 구성으로 효제문자도와 관련이 없는 책거리나 산수화를 그려 넣어 장식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3) 후기양식

후기는 단청식 장식 무늬 유형과 단순화, 도식화된 유형, 혁필로 대표할 수 있다. 대량으로 공급되는 그림은 필연적으로 화격(畫格)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또 유형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러한 추이가 효제문자도의 양식상 특성을 형성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규경(李圭景, 1788 ~ ?)도 지적했듯이 점차 제작자와 소비자 모두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채 의미와 기능이 탈락되어 인습적으로 전승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흐름은 1920~1930대까지 지속되었다.¹³⁾



[도9] 『문자도』 지본채색, 개인소장,
19세기 후반

[도10] 『문자도』 지본수묵, 시즈오카시립
세리지와케이스케 미술관, 19세기

[도9]의 그림을 살펴보면 서체는 도안화된 간략한 서체로 외각선을 그리고 안에는 먹선으로 채우는 대신에 은은한 문양만을 표현하여 중기의 문자도보다 글자의 의미를 더욱 약화시켰다. 함께 그려져 있는 도상들은 색을 최대한 절제하며 투명한 색채감으로 서체와 조화를 이루며 또 다른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도10]은 획의 시작과 끝만을 강조하고 중간부분이 흐리게 표현되어 붓의 속도감을 느끼게 해주는 혁필화이다. 혁필화는 기존의 관습을 타파하고 문자의 해체와 동시에 자유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조형어법을 보여주고 있다.

13) 金紅男, 「朝鮮時代繪畫史論」, 『미술사논단』 9, 한국미술사연구소 1999 pp.317-323

3. 효제문자도의 상징성

문자도는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그림이다. 문자 자체만으로 그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문자와 함께 장식되는 소재들이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그 종류는 내용과 의미에 따라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수호를 상징하는 용(龍), 호랑이(虎), 거북(龜)의 글자들로 주술적인 의미를 지닌 수호상징문자도(守護象徵文字圖)와 부귀(富貴), 수복(壽福), 다남(多男) 등의 글자를 이용하여 현세의 행복과 안락을 기원하는 길상문자도(吉祥文字圖), 마지막으로 문자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효제문자도가 있다.

효제문자도는 유교적 윤리관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문자도로 효·제·충·신·예·의·염·치 여덟 글자를 그 뜻에 맞는 상징적인 고사, 일화를 나타내는 물상으로 글자와 함께 그려진다.

이러한 여덟 글자는 우리 민족이 살아가며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으로 「소학(小學)」을 통해 배웠음을 다음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날마다 고사(古事)를 기억하게 하고 옛날과 지금에 구애받지 말고 먼저 ‘효제충신예의염치’ 등의 일을 들려주고, 황향(黃香)이 침석(枕席)에 부채질 한 일, 육적(陸績)이 굴(橘)을 쪼은 일, 손숙오(孫叔敖)의 움덕, 자로(子路)가 등에 쌀을 져 나른 일 같은 것을 세속의 이야기처럼 들려준다면 곧 그 도리를 깨닫게 되고, 이것이 오래되어 마음에 젖으며 덕성이 자연적으로 우러나오게 될 것이다.¹⁴⁾

위의 글과 같이 ‘효제충신예의염치’와 관련된 고사를 듣고 배웠으며 실제로 황향이나 육적 등의 고사는 효제문자도에 표현되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효제문자도는 반드시 효·제·충·신·예·의·염·치 자를 한단위로 하며, 대개 팔폭중병(八幅中屏)으로 제작된다.¹⁵⁾

또한 효제문자도가 단순한 장식 그림을 넘어서 조선시대의 도덕적인 행동지침의 시각적 효용성을 높이려는 장치이면서 우리 민족의 삶 속에 녹아 있는 것으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식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윤리 의식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자도는 민중 속에 대중화되면서 본래의 덕목들은 희박해지고 서민들이 현실적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길상의 의미와 수호 상징적 의미를 지닌 민속예술로 새롭게 그려졌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화성이 더 강조되면서 그 상징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장식성에 치중한 그

14) 『小學』, 「嘉言」, 「廣入敎」 제2장

15) 박정민, 『조선 문자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

림으로 그려지기도 하였다.

본문에서는 문자도의 도덕적 윤리관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효제문자도의 여덟 글자를 통하여 그에 관련된 내용과 의미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소재들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효자도(孝子圖)



효자도에 나오는 잉어, 죽순, 거문고, 부채, 굴 등은 효(孝)를 상징하는 소재들로 그와 관련된 설화 속에 등장하는 상징물들이다. 잉어는 왕상고빙(王祥叩冰)의 설화로 진(晉)나라의 학자 왕상이 병든 계모를 위해 연못의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 계모에게 대접했다는 내용과 연관되어 효를 상징한다. 죽순은 맹종읍죽(孟宗泣竹)으로 오(吳)나라 맹종의 효행을 상징한다. 맹종은 병든 노모를 위해 한겨울에 죽순을 구하려고 대나무밭에 갔다가 눈물을 흘렸더니 별안간 죽순이 솟아나 어머니께 드린 설화이다. 부채는 황향침선(黃香枕) 설화로 황향(黃香)이 더울 때는 부모님께 부채질을

[도11] 『문자도』 지본채색, 해드리고 추울 땐 자신의 몸으로 따뜻하게 해주었다는 효행 일본민예관 19세기. 의 상징이다. 거문고는 대순탄금(大舜彈琴)의 상징으로 순(舜)인금이 부모를 즐겁게 하기위해 요(堯)임금에서 받은 거문고를 탔다는 설화이다.

(2) 제자도(弟子圖)



제자도는 형제간의 우애를 중요시하는 덕목으로 할미새와 산앵두나무가 등장한다.

적령(鶺鴒)이라고도 하는 할미새는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움직이며 서로 돕는 형제애에 비유한 시경(詩經)의 글귀에서 유래되었으며 상채(常棣)라는 산앵두나무 역시 줄기가 길어 꽃이 아래로 늘어져 꽃받침이 함께 어우러져 피는 모습을 시경에서 형제간의 우애로 비유한 것이다.

[도12] 『문자도』 지본채색, 개인소장 19세기.

(3) 충자도(忠子圖)



[도13] 『문자도』, 지본채색,
개인소장, 19세기.

충자도는 충절을 상징하는 소재들로 용과 잉어, 새우, 대합, 대나무, 거북이 등이 등장하여 직을 형상화하고 있다.

용과 잉어의 출처가 되는 고사인 어변성룡(魚變成龍)에 대한 고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변성룡(魚變成龍)은 『후한서(後漢書)』의 ‘이응전(李應傳)’에 나오는 이야기로 해마다 봄철이 되면 황하(黃河)상류 용문협곡(龍門峽谷)에서 못 잉어가 모여 급류를 타고 뛰어 오르는데, 이때 성공한 잉어가 용이 된다는 것이다.¹⁶⁾

대합과 새우는 하합상하(蝦蛤相賀) 의미로 군신(君臣)의 화합을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을 뜻하며 또한 충절과 최상의 직위를 상징하고 있다.

(4) 신자도(信子圖)



[도14] 『문자도』, 지본채색,
국립민속박물관, 19세기.

신자도는 인간관계에서 언약, 규칙, 도리를 믿고 지켜야 한다는 덕목으로 서신(書信)이라는 믿음을 전하는 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로 서왕모(西王母) 설화를 형상화한 ‘청조(靑鳥)’와 한(漢)나라 소무(蘇武)라는 사람이 흉노에 사신으로 갔다가 북해상에서 억류되었을 때 이 사실을 전해준 흰기러기가 등장한다. ‘청조(靑鳥)’는 사람 머리에 새의 몸 인두조신(人頭鳥身)을 하고 있는데 서왕모의 사자(使者)역할을 하는 새이다. 『한무고사(漢武故事)』에 의하면 7월 7일 한무제가 승화전(承華殿)에 있을 때 홀연 서쪽에서 청조가 날아왔는데, 이를 보고 동방삭이 서왕모가 올 징조라고 맞추었다고 한다. 따라서 청조도 온다는 언약, 믿음을 상징한다.¹⁷⁾

16) 허균, 『전통미술 소개와 상징』, 교보문고 1991 p. 37

17) 진준현, 「민화문자도의 의미와 사회적 역할」, 『미술사와 시각문화』, 2004, p.75

(5) 예 자도(禮子圖)



[도15] 『문자도』 지본채색,
국립민속박물관, 19세기.

예 자도(禮子圖)는 강론하고 있는 공자의 모습이 그려지거나 책을 등에 진 거북이가 주로 등장한다.

『한무고사』에 의하면 하우(夏禹)때에 낙수(落水)로부터 나온 거북이의 등에 글이 쓰여 있었는데, 이것이 홍범구주(洪範九疇)의 기원이 되었다 한다. 홍범은 주서(周書)의 편명(篇名)이며, 구주는 기자(箕子)가 무왕의 물음에 대답한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의 대법을 말한다. 구주의 여섯 번째에 예용삼덕(乂用三德)이라는 것이 있는데, 삼덕(三德)은 정직(正直), 강극(剛克), 유극(柔克)을 말한다. 이 삼덕이 예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서책을 등에 진 거북이가 예의 상징물로 선택된 것이다.¹⁸⁾

(6) 의 자도(義子圖)



[도16] 『문자도』 지본채색,
개인소장, 19세기.

의 자도(義子圖)는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桃園)에서 결의하는 장면이나 도원결의(桃園結義)의 상징인 복숭아꽃이 그려지기도 한다. 또한 『시경』 「주남관저(周南關)」 시에서 유래한 물수리 두 마리가 글자상단 두 획으로 표현되어 부부 간의 정다운 의미를 상징한다. 일부에서는 물수리 대신 두 마리 나비로 표현되기도 한다.

18) 허균. 앞의 책. 1994. p.173

(7) 염자도(廉子圖)



[도17] 『문자도』 지본채색, 개인소장, 제작연도 미상.

염자도(廉子圖)는 청렴, 검소, 정직을 뜻하며 주로 봉황이나 게가 단독으로 등장하거나 소나무, 국화 등이 함께 등장한다.

봉황은 오색 빛에 오음을 낸다는 상상의 새인데 닭 머리에 뱀의 목, 제비의 턱에 거북이 등, 물고기 꼬리 모양을 하고 있다. 그 성품이 벌레나 풀을 먹지 않고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하여 청렴과 절제를 상징한다. 게의 등장과 함께 간혹 ‘염계한천 전진후퇴 울림극석 울리송국(廉溪寒川 前進後退 鬱林戟石 栗里松菊)’라는 화제가 있는데 게의 앞으로 갔다가 뒤로 물러서며 앞으로 나아가는 게의 행동 습성에 연계지어 상징한다.¹⁹⁾

(8) 치자도(恥子圖)



[도18] 『문자도』 지본채색, 일본민예관, 19세기.

치자도(恥子圖)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수양매월 이제청절(首陽梅月 夷薺清節)이라는 고사의 상징들이 주로 등장한다. 백이, 숙제의 상중생활이 그려지거나 토끼가 방아를 짚고 달과 매화를 그려 넣어 수양산에서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19) 하수경. 앞의 책. p. 333

4. 현대의 문자그림

현대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오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과 개인이 소통하고, 사회와 개인이 소통하며, 사회와 사회가 소통하고 있다. 인터넷은 과거에는 없던 과학이 가져다 준 새로운 형식의 소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편리한 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디지털(Digital) 세대들은 그 컴퓨터 공간 안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의사소통방식을 통하여 독특한 문화들을 형성해나가고 그 중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통의 수단인 덩벳폰트가 있다.



[그림 1] Wed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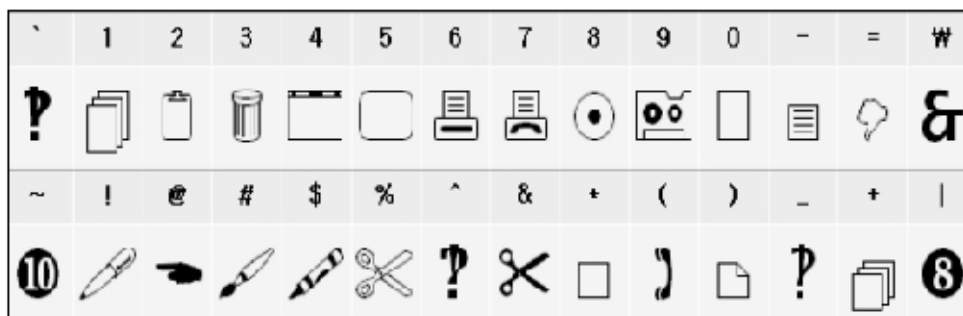
아이콘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서체에 재미를 주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덩벳폰트는 문자 폰트가 아닌 간단한 이미지 혹은 기호가 문자를 대신하는 폰트이다. 키보드 자판을 통하여 글자를 쓰듯이 웹이라는 도화지에 이미지들을 표현하는 덩벳폰트는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로도 사용되며 컴퓨터를 제어하는 명령을 표현한 아이콘을 만들거나 로고제작이나 홈페이지 제작 등에 상징적 혹은 장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덩벳폰트의 종류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이는 인터넷 상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다. 많은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회사에서는 분야별 특징에 따라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고 개인이 직접 만들어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이지를 통하여 배포하기도 하고 각종 커뮤니티를 통하여 서로 공유하여 확산 되기 때문에 폰트의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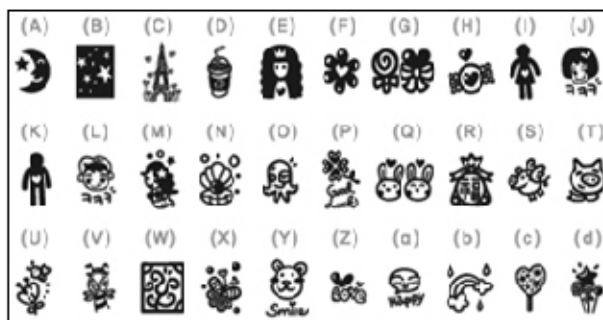
딩벳폰트를 그 특성에 따라 기호적 폰트, 장식적 폰트, 개념적 폰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기호적 폰트는 상징성을 지닌 그림폰트들로 표현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기 위한 아이콘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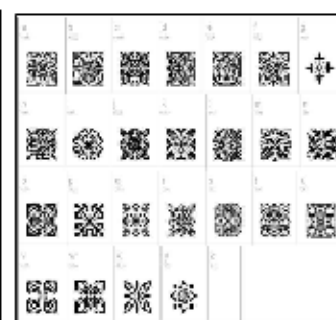


[그림 2] Weddings2

장식적 폰트는 말 그대로 장식을 하기 위한 dingbat폰트로 기업의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각종 디자인에 손쉽게 적용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그림 3] 윤디자인 수디딩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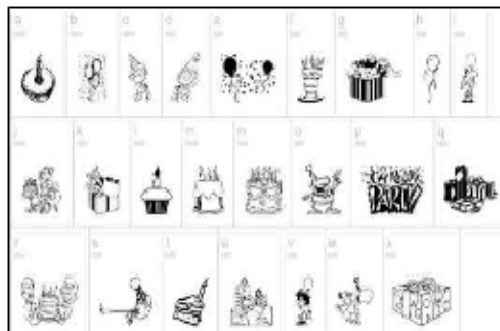
[그림 4] SL square ornaments font

[그림 3]은 윤디자인에서 디자인하여 내놓은 윤수다패키지 폰트 중의 하나로 재미라는 감성을 지닌 아기자기한 dingbat폰트이다. 이는 모바일 시장, 유아·아동출판물, 개인 쇼핑물이나 웹사이트, 개인 블로그를 타겟으로 하여 디자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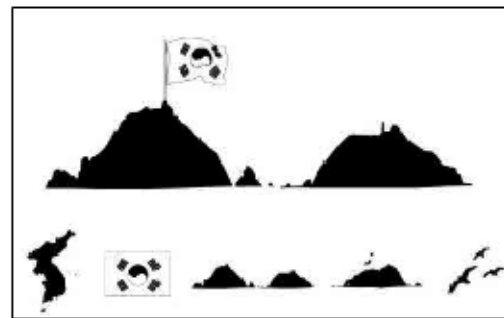
[그림 4]는 웹상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폰트 중의 하나로 그 출처는 정

확히 알 수 없으나 장식을 위한 패턴덩벳으로 각기 다른 문양의 덩벳들을 이용하여 또 다른 패턴을 디자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패턴형식의 덩벳은 전통문양으로도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에서 출시되고 있다.

개념적 폰트는 전체적으로 어떤 컨셉을 지니고 서체 하나하나가 그 주제 아래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폰트를 말한다. 이 폰트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형성된 폰트이니 만큼 특정 분야에 디자인 되거나 기념으로 만들어져 수집되기도 한다.



[그림 5] birthdaze



[그림 6] 독도체 폰트팩스

[그림5]는 생일을 주제로 한 폰트로 생일과 관련된 이미지를 일러스트 형식으로 디자인한 덩벳폰트이다. 이는 웹상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생일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질 것이다.

[그림6]은 독도체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제를 지니고 일반 글자폰트와 함께 기념비적으로 출시된 덩벳폰트이다. 이와 같은 주제로 윤디자인에서도 독도체를 출시하였는데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는 덩벳폰트의 소재로 종종 사용되어진다.

5. 문자를 소재로 한 작품사례

문자는 인간 고유의 사고와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로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문자는 현대미술에서 그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거나 현대적 감각과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조형 세계를 전개하고 있다.

문자추상으로 독창적인 조형성을 표현한 고암 이응노는 한자와 한글을 해체하거나 변형하여 회화작품으로 재구성하였다.



[도19] 『구성』 이응노, 한지에 판화, 1976



[도20] 『화』 이응노, 한지에 먹, 1982

[도19]는 기하학적으로 표현된 문자들로 개개의 문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효제문자도의 후기 양식 중 문자를 과하게 도안화하여 표현하여 문자의 의미보다는 시각적 효과를 강조한 양식에서 기인한 것을 알 수 있다.

[도20]에서 역시 문자의 의미는 전혀 알 수 없도록 추상적으로 간략하게 표현함과 동시에 붓의 속도감을 표현하고 있어 혁필화의 조형적 표현과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

로버트 인디애나(Robert Indiana)는 간결하고 상징성을 담고 있는 기하학적인 작품을 주로 만든다. 그는 문자와 상업디자인을 이용한 그래픽디자인 방식을 택하여 극단적으로 간결하면서도 단순한 표어문자에 문학적인 상징성을 내포하였다.

[도21]은 그의 대표작 'Love' 시리즈 중에 한 작품으로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따뜻한 붉은 색과 차가운 푸른색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보는 이에게 강렬한 인상을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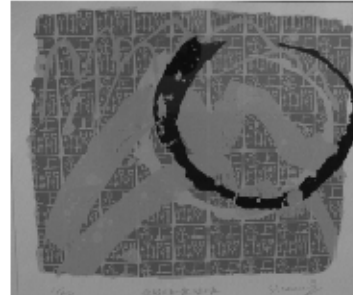
또 다른 작가로는 서예와 현대미술을 접목시킨 작가 황석봉이 있다. 황석봉의



[도21] 『love』 Robert Indiana,
Ed.26



하지, 먹, 염료, 1991 [도23] 『색반아공반아』 황석봉, 아크릴, 2007
작품은 문자의 전통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현대적 표현의 그림과의 융화를 통하여 문자의 이미지를 극대화 하였다. 또한 그는 한자와 먹에 한정되지 않고 재료를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그 표현영역을 확대하였다.



[도22]의 작품은 골판지 위에 먹과 염료를 사용한 것으로 문자의 의미보다는 빠른 붓놀림으로 작가의 내면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도23]의 작품은 아크릴과 판화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낙관을 일정하게 반복함으로써 패턴을 형성하고 그 위에 한자의 글자모양에서 따온 획을 자유롭게 변용하여 겹쳐줌으로써 한자 획의 조형성을 강조하였다.



[도24] 『돌아가시오』 한재철,
자개, 혼합재료, 2005



[도25] 『S+11』 한재철, 자개,
혼합재료, 2005

[도24], [도25]는 한재철의 작품으로 그가 2005년 <갤러리꽃>에서 기획한 개인전에 출품된 작품이다. 이 전시에서 작가는 그 전의 작품들과는 달리 그동안 수집해온 자개 판넬을 이용하여 주제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그는 인류가 문명을 이루며 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 중의 하나를 문자라고 여기고 기호나 단어들을 모아 문자도의 초기양식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문자의 형태는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하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며 자개 판넬을 절단하여 재구성하였다.



[도26] 『문자도-행복』 김민수, 비단, 2007



[도27] 『문자도』 김민수, 2006

김민수는 민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하게 탐구하는 작가이다. 그는 민화의 근원과 정신을 해석하여 다양한 형태와 색감,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태는 캔버스에 한정하지 않고 입체와 설치 작업을 넘나들고 있다. 색감은 팝아트적 성향의 높은 채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작품들은 붉은 색이 바탕이 되고 있다. 이는 붉은 색이 모든 것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색으로 벽사, 부귀, 탄생을 의미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민화 속에 현재 일상생활 속의 소재들을 화면에 등장시킴으로서 전통과 현재의 공존을 제시하고 있다.

[도26] ‘행복(幸福)’이라는 글자를 붉은 바탕에 표현된 작품으로 서체의 형태는 간결하게 표현하면서 그 안에는 검은색과 회색으로 모란무늬를 문양으로 전개하여 표현하였다. 도상 중에서는 모란이 가장 화려하고 강하게 표현되어있는데 이 소재는 작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로 부귀영화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행복(幸福)’이라는 문자와 연결성을 지니고 있다.

[도27]는 ‘通’자로 이 역시 모란을 주 소재로 하여 등장시켰고 붉은 바탕 아래 영문필기체를 장식적으로 표현하여 바탕과 서체간의 원근감을 주고 있다.



[도28] 『문자도』 손동현, 지본수묵채색, 2007
손동현 작가는 민화, 초상화, 산수화, 문자도에 이르기까지 전통회화의 시각



[도29] 『문자도』 손동현, 지본수묵채색, 2006

적 모티브와 기법으로 대중적인 소재, 브랜드의 로고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표현하고 있다. 그는 문화적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성질을 한 화면 안에 융화 시킴으로서 충돌과 조화를 통하여 새로운 조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박미나는 디지털 세상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소통의 수단인 덩벙폰트를 이용한 작품을 만든다. 작가는 폰트의 이미지를 먼저 선택해 레이아웃을 잡은 뒤 그 폰트가 대입되는 글자를 찾아 말이 되도록 한다든지 우리가 잘 사용하는 욕을 키보드에 입력하여 덩벙폰트로 전환한 뒤 재구성하기도 한다.

그의 ‘딩벳회화’는 관객의 시선, 혹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기호로서의 이미지를 덩벳폰트로 표현함으로써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그 의미와 표현이 형성되는 현대의 문자그림의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각종 덩벳폰트와 기존의 아크릴칼라 색을 수집하여 재생산, 재구성함으로써 현대의 시각문화의 단면을 표현하고 있다.

1. 작품계획

현대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특정한 의미전달을 위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소통의 도구로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상징성을 지닌 문자 그림이 있다. 문자그림은 문자의 생성 단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형태로 가장 직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원시적 성격을 지닌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자와 그림이 분리되어 지금의 실용적인 기호로 정립되기도 하였지만 동양에서는 문자와 그림을 동일시하는 한자를 만들고 문자도와 같은 문자그림을 만들어 그들의 의식과 정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 직접적이며 유희성을 지닌 원시적 성격의 문자그림인 덩벙폰트를 통하여 소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자조형이라는 예술적 표현으로 과거의 문자그림인 효제문자도와 현대의 문자그림인 덩벙 폰트의 이미지를 소재로 삼아 병치시킴으로서 두 소재의 대립과 조화를 통해 문자가 지니는 상징성과 시대적 변화, 과거와 현재의 공생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효제문자도가 과거 민중 속에서 보편적인 윤리관과 감성으로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 발전하며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던 실용적인 용도의 그림이었다고 하면, 덩벙폰트는 디지털 공간 안에서 현대사회의 감성과 정서를 담고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이다.

이러한 효제문자도와 덩벙폰트는 실용적·대중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현재와 과거라는 시간 안에서 소통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접목시켜 다음과 같이 본 작품에 응용하여 계획하였다.

첫째, 문자도의 구조적 특성 중 하나인 역원근법을 이용한 육면체를 바탕의 형태로 구성하고 그 위에 효제문자도와 덩벙폰트를 각각 독립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동시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둘째, 효제문자도를 부조와 입체로 재구성하여 소재를 강조함으로써 문자도가 지니는 그림의 상징성과 조형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셋째, 덩벙폰트는 효제문자도에 나타나 있는 소재들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평면적인 기호 표현을 함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같은 소재의 의미 변화와 형태변화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넷째, 효제문자도는 상징성을 지닌 화려한 전통색을 이용하여 보색대비를 통

해 소재를 부각시키고 입체감을 살리고자 하였다. 또한 성형의 세밀한 묘사를 찾고 부식되고 마모된 질감을 표현하여 과거라는 시간을 나타내고자 1차 소성된 기물 위에 땅간을 시유해 닦아낸 뒤 그 위에 안료와 산화물을 섞은 테라시 질레타로 채색하였다.

다섯째, 덩벙폰트는 현대라는 시간을 나타내고자 강렬한 원색의 광택유를 사용함으로써 효제 문자도와 질감의 대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2. 제작과정

(1) 소지

작업에 사용된 소지는 성형의 용이성, 건조 및 소성수축으로 인한 변형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샤모트(Chamotte)²⁰⁾와 물라이트(Mullite)²¹⁾ 성분이 함유된 석기질 점토를 사용하였다. 그 성분 조합비는 다음과 같다.

원 료	조합비
와목점토	50
물라이트	25
월러스토나이트	10
산청토	10
벤토나이트	5
계	100

<표1> 소지 조합비(%)

(2) 성형

20) 내화 점토를 1,900~1,500℃의 고온으로 구운 가루.

21) 산화알루미늄과 이산화규소의 화합물.

성형에 있어서는 석고틀을 이용한 가압성형과 관성형 및 속파기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변형된 육면체를 성형할 경우에는 미리 제작해 놓은 석고틀에 점토를 일정하게 밀어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눌러가며 성형하였다. 석고틀 안에서 반 건조 상태가 되면 기물을 꺼내고 슬립을 이용하여 효제문자도의 서체 부분을 부조로 표현하였다. 효제문자도의 도상들은 따로 속파기 기법을 이용하여 성형하여 접합하고 덩벙폰트는 판을 얇게 밀어 잘라 준 뒤 접합하여 준다. 접합 시 주의할 점은 건조과정에서 접합면에 실금이 갈 우려가 있으므로 비닐을 덮어 서서히 건조시켜야 한다.

(3) 색채 장식 및 유약

색채 장식으로는 중화도 색유와 테라시질레타를 함께 사용하여 유광과 무광, 질감의 차이를 통하여 대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중화도 색유는 시판되고 있는 유약으로 미국의 도자재료 회사 Duncan에서 나온 원색과 광택이 나는 IN 시리즈[표2]를 사용하여 강렬한 느낌을 살려주고자 하였다. 1차 소성이 된 상태에서 먼저 망간을 붓으로 시유한 뒤 닦아 주었는데 이는 색유의 채도가 낮아져 테라시질레타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해줌과 동시에 도상들을 묘사한 선들을 선명하게 표현해주었다. 테라시질레타는 기본적으로 [표3]과 같은 백색과 적색의 테라시질레타를 만들고 이에 안료를 첨가하여 [표4], [표5]와 같은 색상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4) 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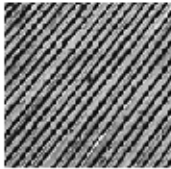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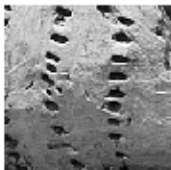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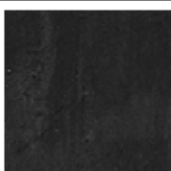
1차 소성에서는 2차 소성의 온도가 중화도로 소성되어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초벌온도보다 높은 1150℃ 까지 12시간 정도로 서서히 소성하였다. 2차 소성은 중화도 색유와 테라시질레타의 발색을 위하여 1050℃에서 산화소성였다.

색 상	유 약
	IN 1074 / Cranberry
	IN 1075 / Cobalt Blue
	IN 1072 / Baroque Gold
	IN 1116 / Emerald Bay
	IN 1082 / Chocolate B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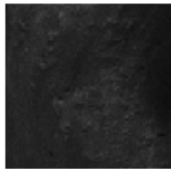





<표2> Duncan 사의 중화도 유약

재료	White Terra Sigillata	Red Terra Sigillata
Ball-Clay	1,500	
Red-Art		1,500
탄산나트륨	4.5	12
물(cc)	6,000	4,500

<표 3> 테라시글레타 조합량(g)

색상	White Terra Sigillata	Red Terra Sigillata	안 료
	100		White 30
	100		Harvest 20
	100		Harvest 30
		100	Yellow 25
		100	Red 10 Yellow 10
		100	Harvest 20
		100	Dark Brown 30

<표4> 테라시굴레타와 안료의 조합비a

색상	White Terra Sigillata	Red Terra Sigillata	안 료
		100	Black 30
	200		Yellow 30 Black 1
	100		Yellow 20 Dark Brown 1
	100		Green 20 Black 1
	100		Green 30
	100		Cobalt Blue 20 Black 1

<표5> 테라시글레타와 안료의 조합비b

3. 작품설명

[작품1] 문자도와 Dingbat I

기본적인 형태는 역원근법을 이용한 육면체로 그 위에 효제문자도와 덩벙폰트를 각각 독립적으로 묘사하고 병치시켜 연결함으로서 대비와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라는 두 시대가 대비를 이루면서도 연결되어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본 작품의 효제문자도는 효행의 상징들로 이루어진 효자도와 『시경』 「주남관저」 시에서 유래한 물수리가 등장하는 의자도를 표현하였다. 이 두 문자도에서 왕상고빙(王祥叩冰)의 설화에서 유래된 잉어와 의자도의 물수리는 평면적인 서체와는 다르게 입체적으로 묘사하여 상징성을 지닌 그림을 강조하여 주었으며 덩벙폰트에서는 잉어와 물수리를 평면적으로 표현하여 문자도와 덩벙폰트의 대비를 통한 새로운 조형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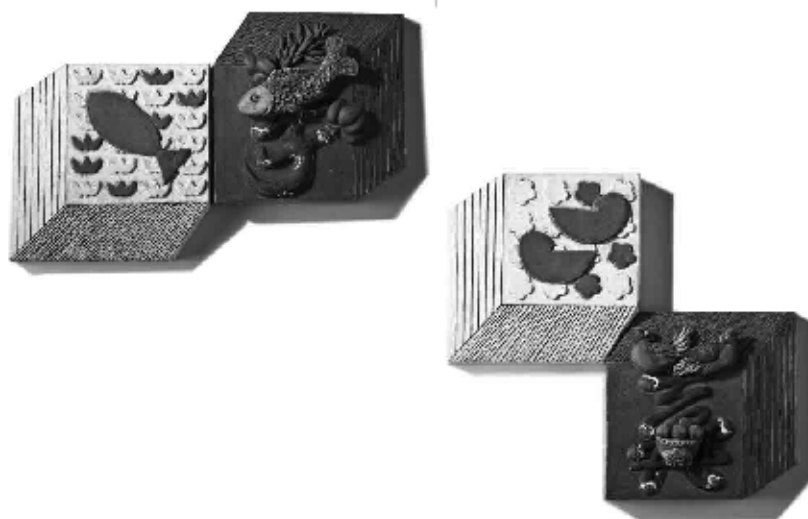
[작품2] 문자도와 Dingbat I

문자도는 청렴과 절제라는 의미를 지닌 염자도를 표현한 작품으로 소재와 서체의 입체감을 살려 회화적 표현을 하였으며 덩벙폰트는 계의 이미지를 단순화시켜 기호로 표현함과 동시에 장식적인 덩벙폰트를 패턴화 시켜 표현함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문자그림이 지닌 조형적 요소가 대비를 이루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색감 표현에 있어서 벽사, 부귀의 탄생을 상징하는 붉은 색을 효제문자도의 바탕색으로 채색하고 청정과 광명, 도의의 표상으로 태양의 색을 상징하는 흰색으로 덩벙폰트의 바탕색으로 채색하여 문자그림의 특징 중 하나인 상징성을 색감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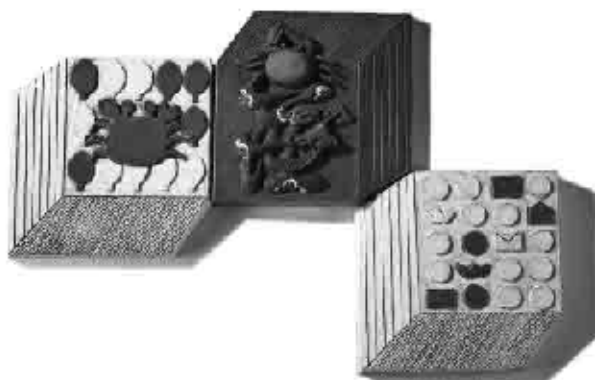
[작품3] 문자도와 Dingbat II

충자도에 표현된 새우는 하합상하 의미로 충절과 최상의 직위를 상징함과 동시에 서체의 획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표현에 있어서는 다른 소재들과 마찬가지로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서체와 구분시켜줌으로서 소재가 지닌 상징성을 강조하고 덩벙폰트와 형태적으로 강한 대비를 이루도록 하였다.

언약, 믿음을 상징하는 신자도는 서왕모 설화를 형상화한 것으로 소재들이 전체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지니며 스토리를 형성하고 있다. 덩벙폰트에서는 그 중 서신을 전하는 기러기를 단순화, 평면화 시켜 표현함과 동시에 그 바탕에는 서신의 의미를 지닌 덩벙폰트의 이미지를 패턴으로 표현하여 줌으로서 과거와 현대의 문자그림이 지닌 조형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1] 유자도와 Dinobat I. 250×250×H80mm. 조합토, Terra Sigillata, 1050℃



[작품2] 유자도와 Dinobat II. 250×250×H80mm. 조합토, Terra Sigillata, 1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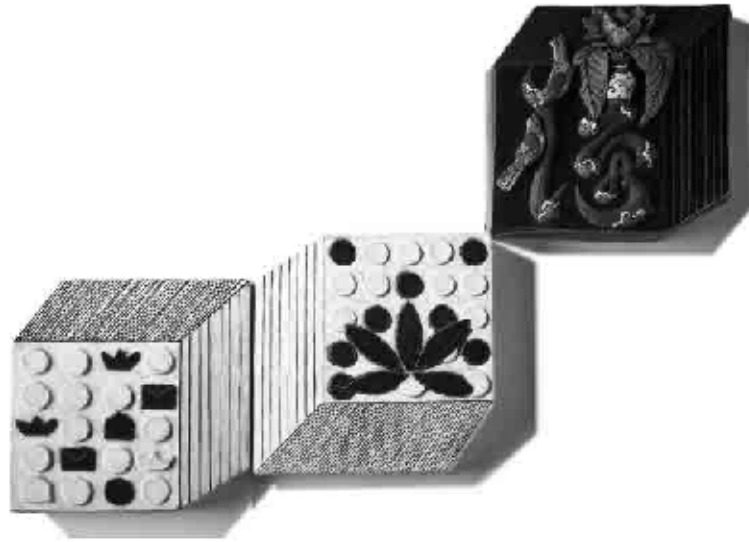
[작품3] 문자도와 Dingbat III, 250×250×H80mm, 조합토, Terra Sigillata, 1050℃

[작품4] 문자도와 Dingbat IV

제자도는 형제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문자도로 시경에서 유래한 할미새와 산앵두나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덩벙폰트는 그림이 가지는 상징성을 강조하고 같은 소재인 산앵두나무를 단순화시켜 기호적으로 표현하고 패턴화된 덩벙폰트와 어우러지도록 표현하여 과거와 현대의 문자그림이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조형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색채표현에서는 창조, 신생, 생식을 상징하는 청색을 광택이 나는 색유를 사용하여 효제문자도의 바탕색으로 채색하고 문자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모되고 부식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테라시질레타로 표현하였다. 덩벙폰트에서는 청정과 광명, 도의의 표상으로 태양의 색을 상징하는 흰색의 테라시질레타로 덩벙폰트의 바탕을 채색하고 덩벙폰트는 문자도의 청색유로 채색함으로서 문자도와 덩벙폰트의 색감과 질감이 대비를 이루면서도 조화를 이루도록 표현하였다.

[작품5] 문자도와 Dingbat V

예자도는 『한무고사』에서 유래된 서책을 등에 진 거북이가 상징물로 등장한다. 본 작품에서는 이러한 상징성을 지닌 거북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문자도에서 서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보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색채는 [작품4]와 마찬가지로 창조, 신생, 생식을 상징하는 청색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문자도와 Dingbat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적색, 청색, 흰색을 사용함으로서 전통색이 지니는 의미를 표현함과 동시에 광택이 나는 색유를 사용하여 마모되고 부식된 과거의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테라시질레타와 채도와 질감의 차이를 줌으로서 과거와 현대의 문자그림이 대비를 이루도록 표현하였다.



[작품4] 문자도와 Dingbat IV, 250×250×H80mm, 조합토, Terra Sigillata, 1050℃



[작품5] 문자도와 Dingbat V, 250×250×H80mm, 조합토, Terra Sigillata, 1050℃

[작품6] 염자도와 Dingbat

전체적인 형태의 바탕은 정육면체를 기본으로 하고 모서리 부분을 변형시켜 세 개의 형태가 다양한 위치에서 연결되도록 하였다. 청렴을 상징하는 봉황은 문자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입체적 표현을 해줌으로서 그 상징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육면체를 이루는 각 면들에는 문자와 문자도를 이루는 도상들, 그리고 덩벳폰트를 표현하여 각 요소들 사이에 흐름들을 형성하고 색감은 전통적으로 가장 고귀한 색을 상징하는 황색과 벽사, 부귀의 탄생을 상징하는 붉은 색의 일종인 갈색을 사용하였다. 황색을 던컨유로 화려하게 시유하여 주었으며 이와 어울릴 수 있도록 갈색을 던컨유와 테라시질레타를 이용하여 표현해 주었다.



[작품6] 염자도와 Dingbat, 490×310×H330mm, 조합토, Terra Sigillata, 1050℃

[작품7] 예자도와 Dingbat

예자도(禮子圖)에는 홍범구주(洪範九疇)의 설화에 등장하는 서책을 등에 진 거북이와 고성을 역시 문자에서 벗어나 입체적으로 표현하여주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정육면체와 변형된 정육면체로 이 두 형태를 연결하여 표현하였으며 이 역시 면들에 문자와 덩벙폰트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육면체의 한 면에 표현된 문자는 부조로 표현하였으며 장식적인 요소들을 넣어주어 위의 도상들과 통일감을 이루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색감은 창조, 신생, 생식을 상징하는 청색 중의 하나인 녹색을 던컨 유로 시유였고 벽사, 부귀의 탄생을 상징하는 붉은 색의 일종인 갈색을 사용하여 테라시질레타와 던컨을 이용하여 채색하였다.



[작품7] 예자도와 Dingbat, 330×490×H490mm, 조합토, Terra Sigillata, 1050℃

IV. 결론

문자그림은 문자의 초기형태로 인류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왔으며 오늘날까지 인간의 사고와 감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소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과거의 문자그림인 효제문자도와 디지털시대의 문자그림인 덩벙폰트를 이용하여 도자조형으로 표현하였다. 과거와 현재의 문자그림을 병치시키고 연결함으로서 시대를 넘어 문자그림을 통한 소통의 의미를 나타내고 문자그림이 지니고 있는 기능과 의미,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I 장에서는 문자그림을 주제로 하는 연구의 목적을 서술하고 문자그림의 정확하게 이해하여 표현하고자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II 장에서는 문자그림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문자그림이 지닌 의미와 생성 배경들을 알아보고 과거의 문자그림인 문자도와 현대의 문자그림인 덩벙폰트의 개념과 종류, 조형적 특징을 파악해 보았다. 또한 문자그림을 예술적 표현소재로 삼은 다른 작품들은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졌는지 알아보았다.

III 장에서는 위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에 대한 계획과 제작 과정을 서술하였고 연구의 결과물인 작품에 대한 해설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문자그림을 이용한 도자조형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효제문자도가 지니는 함축적인 의미 전달을 위한 상징체계 방식은 새로운 조형언어를 찾고자 하는 현대미술에서 그 소재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표현 방법에서는 이미지 차용을 이용한 재구성에 비중을 둠으로서 도자예술이 지니는 조형언어로서 부족한 면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둘째, 덩벙폰트의 이론적 배경은 관련 서적이나 학위논문을 통하여 연구된 바가 없어 본 연구자가 현대사회에서 덩벙폰트가 활용되는 현상들을 분석하고 조사하여 보다 독자적인 이론적 고찰을 할 수 있었다.

셋째, 효제문자도와 덩벙폰트의 병치를 통하여 현재와 과거의 흐름 속에서 상징적 의미들을 통한 소통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자의 결과물을 토대로 하여 문자그림이 지니는 함축적 의미들과 상징성, 시대에 따른 가치와 의미들이 앞으로 새로운 조형언어로 재해석되어 다양한 조형적 시도를 통해 연구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학위논문

- [1] 조한범, 『문자를 주제로 한 도자조형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 권영주, 『조선 효제문자도의 도상적 특성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박정민, 『조선 문자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단행본

- [4] 예술의 전당, 『문자의 세계』, 예술의 전당 출판부, 1996.
- [5] Georges Jean, 『문자의 역사』, 강동일 역, 사계절, 2003.
- [6] 김영평, 정인화, 『유교문화의 두 모습』, 아연출판부, 2004.
- [7] 김호연, 『한국민화』, 경미문화사.
- [8] 김진영, 김현주 역주, 『한국민화』, 박이정, 1996.
- [9] 박성의, 「한양가」, 『농가월령가』, 예그린출판사, 1978.
- [10] 『小學』, 「嘉言」, 『廣入教』 제2장
- [11] 허균, 『전통미술 소재와 상징』, 교보문고, 1991.
- [12] 진준현, 「민화문자도의 의미와 사회적 역할」, 『미술사와 시각문화』, 2004.

학회논문

- [13] 金紅男, 「朝鮮時代繪畫史論」, 『미술사논단』 9, 한국미술사연구소, 1999
- [14] 하수경, 「한국 민화의 윤리 문자도의 상징과 표현 읽기」, 『비교민속학』, Vol.25 No.2003.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 by the pictograph
-Focused on the Munjado and Dingbat font-

Yoo, Mi Na

(Supervisor Lee Myung Ah)

Dept. of Ceramic Arts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 pictograph, the type of letter that human first used, carries the emotion and sense of human as the means of communication beyond the time and space constraints. It was formed as the means of reproduction of reality, recorded the history as the most direct type and has changed and evolved diversely along the trend of the times. In the west, such pictograph became the origin of the letter and painting, which were separately developed over the time. On the other hand, in the East, letter and picture were regarded as one, creating the letter arts of calligraphy and calligraphy-deformed painting of Munjado. Munjado is a type of practical painting manufactured and distributed based on the ethics of Korean, and is our unique pure arts carrying the unique aesthetic sense of Korean. Among such Munjajo, Hyoje Munjado reflects the mindset of the times and Confucian virtue, harmoniously integrating symbolic pictures on the screen along with the letters. It shows decorative beauty with harmony of unique structure and colors. At present, pictograph forms a new culture as it is popularly used in digital space as a tool of new communication that has symbolism and amusement, different from language.

I aims to express symbolic function, social and cultural meaning of pictograph, plastic beauty of pictograph by selecting the Hyoje Munjado, the past pictograph and Dingbet font, the current pictograph, as the materials of expression and expressing them as sculptural ceramics. In addition, by juxtaposing two elements of past and present, forming

temporal confrontation, this study expressed that two times are connected and coexisted.

In terms of work production, by reorganizing Hyoje Munjado expression with relief and cubic effects and emphasizing the materials, the symbolism of picture was demonstrated. Dingbet font was used for plane sign expression through the process of simplifying the materials of Hyoje Munjado, showing the meaning of materials and changes of the forms over the times and looking back the social meaning that the text had.

As for the color decoration, the traditional color with symbolism was expressed with complementary color contrast, emphasizing the material and cubic effects. In addition, Hyoje Munjado expressed the textures deteriorated and rusted so as to express the trace of the times, while the Dongbet font expressed the glossy texture for modern touch.

This study expressed the pictograph of the past and the present at the same time, serving as a change to understand the symbolism of pictograph beyond the time and space constraint, temporal and cultural meaning as well as to reconsider the plastic and symbolic beauty that pictograph has and communication meaning that the letter has through the confrontation and harmony of the times.